

민주연구원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의 의미와 과제” 정책브리핑 발간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7월 2일(목),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의 의미와 과제”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 이재영 원장은 “2026년 9월 출범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라고 밝히며, “인구전략은 이제 저출산 대응을 넘어 균형발전, 노동시장과 일자리, 청년, 이민 등 각 분야의 정책을 포괄하는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책브리핑은 인구전략 전환의 중요성,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경과 및 위원회의 주요 기능·역할, 인구전략의 국제적 동향, 위원회의 향후 과제 등을 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 이번 정책브리핑은 인구전략 전환의 중요성,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경과, 인구전략의 국제적 동향, 인구전략위원회의 향후 과제를 다루었다.
 - 첫째, 인구전략은 저출산 대응 정책을 넘어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간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 등 일련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정책 수혜 대상이 일부에 그치고 사각지대가 광범위했으며, 결혼을 앞둔 세대의 생활 보장이라는 근본적 대책 수립에는 미흡했다. 동시에 합계출산율 수치에만 일희일비함에 따라 인구감소는 파멸이라는 소모적 위기론이 반복되었다. 인구전략은 인구수에 그치지 않고, 인구 규모에 맞는 적절한 삶의 모습과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이기도 하다.
 - 둘째, 위원회 출범 경과와 관련하여, 민주당과 22대 국회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인구전략 전환과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재명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출범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 대응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민주연구원 보고서와 국정기획위원회 인구전략과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인구정책의 범위 확대와 거버넌스 개편**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에 '26년 5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의 「인구전략기본법」으로의 전부개정안이 제안되었으며, 국회 의결과 국무회의 심의·의결 및 공포를 거쳐 '26년 9월 인구전략위원회가 확대·개편하여 출범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① 정책목표를 저출산 대응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으로 확대하고 ② 인구전략기본계획의 수립, 심의, 의결을 수행하며 인구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27년 1월부터 활용하게 된다. ③ 또한 개정안에는 각 시·도가 조례를 통해 지역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근거 역시 마련하였다.

- 셋째, 국제적 인구전략 동향을 살펴보면, 이미 인구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중인 선진국은 이재명정부와 22대국회가 제안한 인구전략으로의 전환을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제적 정책 동향의 특징은 (1) '종합적 대응'으로 가족정책·저출산 대응에 한정하지 않고 인구문제를 산업, 경제발전, 노동시장, 이민, 지역균형 발전 등 다양한 영역에 연관하고 있다. (2) '과학적 대응'으로 출산율만이 아닌 다양한 지표와 자료를 활용, 인구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으며 과학적 자료 수집과 증거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3) '거버넌스 혁신'으로 인구전략 전담 부처 구축, 인구전담기관을 통한 인구현상 분석, 중앙과 지방의 인구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 넷째, 인구전략위원회의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❶ 먼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하고 다른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갖춘, 포괄적 종합전략으로서 인구전략기본계획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❷ 인구전략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예산사전협의권의 효과적 활용 방안으로 시행령의 촘촘한 설계, 중점협의대상 지정, 협의 결과의 환류강화 등을 강조했다. ❸ 인구전략위원회의 실무적 역량 강화와 장기적 인구문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인구문제 전담 연구기관 설립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민주연구원 신영민 연구위원은 “인구전략은 저출산 대응을 넘어 종합적·적응적 사회전략으로 거듭나야 하며, 인구전략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인구전략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정책을 조정·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